김별아의 문학과 삶

안내 방송을 믿지 마라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꿀꺽 삼키고, 아이에게 말했다.

"안내 방송을 믿지 마라!"

어쨌거나 보수적인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난 내 몸은 삐딱하게 기울어지는 머리를 배반하고 온순하게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데 익숙하다.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본능까지도 훈육되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기실 순응과 타협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그리하여,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배가 기울고 이상스런 기운을 감지했더라도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들으면 얌전히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 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의 권위를 믿으니까, 믿어야만 하니까. 물이 차오르고 몸이 잠겨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슬프고 아픈 소식들 속에서 살아도 지옥같이 괴로운 나날이었다. 실로 '세월호' 사고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일시에 드러냈다. 시신이 인양되지 않은 며칠 동안 언론에 대한 불신, 인터넷을 통해 양산되는 괴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마구잡이로 폭발했다. 세상의 모든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더욱 쓰라렸다. 이 미친 세상의 희생양은 오직 죄 없는 아이들과 선량한 사람들이기에.

"폐쇄사회가 당하는 가장 큰 곤경, 그것은 모든 사태가 항상 어느 날 갑자기의 형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이라는, 평론가 황현산 선생이 1986년에 쓴 글이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생생한 현재형으로 읽힌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사회를 더욱 '패닉'으로 몰고 간 것은 고스란히 폐쇄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 사건의 경과와 처리 방식이었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라는 암초에 부딪혀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다. 끊임없는 유언비어와 오보와 괴담이 싹틀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책임자도, 체계도, 시스템도, 매뉴얼도 없이 오직 남은 것은 피해자와 상심한 가족들뿐이었던 것이다.

해양 요원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의 교훈 중 하나는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埋骨)"이라고 한다. 매골이란 본디 땅에 뼈를 묻는다는 의미이지만, 이들은 모든 사람이 무사히 탈출할 동안 계속 SOS를 보내며 배와 함께 운명을 다하다가 바다에 뼈를 묻겠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마도로스들에게는 그것이 양심을 넘어선 직업윤리이자 궁극의 책무인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선장은 도망갔다. 배를 버리고, 배 속에 살아있던 수많은 목숨을 외면하고 달아났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 오판이거나 거짓인 선실 대기 안내 방송만 내보내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웬일인지 낯설지 않다. 기막힌 기시감이 든다.

가까이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때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고 대피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고스란히 갇힌 채 사망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서는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가 4000여 명의 피난민들 눈앞에서 폭파되었던 사건이 상기된다. 당시의 인도교는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단 하나의 철교였다. 다리가 끊기던 하루 전날인 27일 새벽,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敗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라는 육성 방송을 틀어놓은 채,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은 남행 열차를 탔다.

아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 국경지대인 의주마저 불안해 명나라 망명까지 모색했던 선조도 이 책임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책임자 대열에서 빼놓을 수 없겠다. 결국 왕성인 경복궁은 일본군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들의 분노에 의해 불탔다.

아이가 어렸을 때 즐겨 보던 만화책 중에 '살아남기' 시리즈가 있었다. 남극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정글에서 살아남기, 빙하에서 살아남기….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절실한 지경이다. 남극과 사막과 정글과 빙하에서 위급 상황에 처할 일이 한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곤궁에 빠질 경우만큼 많기야 하겠는가?

분김에 안내 방송을 믿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안내 방송을 무시하고 혼자 알아서 탈출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재난 상황에서는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이 기본 수칙이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이거나 오판이거나 무책임한 안내 방송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듭되다 보면 아무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없게 된다. 재해와 위난을 오직 개인의 판단과 본능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소설가〉

종교칼럼

공감과 무감(無感)

김 관 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지난 20일은 부활대축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삼일 후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보다도 더 큰 대축제입니다.

이러한 부활사건을 잘 기념하기 위해 천주교회는 부활대축일이 있기 전, 40일 동안 평소보다 절제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순시기에는 휴가나 여행을 자제하면서 그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활대축일 이후로 미루어 둡니다. 저 또한 연초부터 부활대축일 이후 휴가를 잡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접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19일 오후에 진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에 진도 실내체육관 왼편에 마련된 천주교 기도천막에서 다른 두 분의 신부님, 그리고 실종자 신자가족 30여 분과 함께 부활성야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비로소 제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건 발생 4일째라 가족 모두 자녀의 생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모습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부활성야미사가 끝나고 천주교 기도천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6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참사 소식을 접하고서 주말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기 위해 진도로 달려온 이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마음을 지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팽목항에도 천주교 기도천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하룻밤이 지나고 저는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천막설치업자를 기다리면서 실종자 가족실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머니 한 분이 길 가에 쪼그리고 앉아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언니, 나 꼭 내 아들 찾아서 돌아갈게! 꼭 찾아서 돌아갈게." 수 없이 반복하는 그분의 절규를 들으면서 어느새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건 발생 5일째! 육지도 아닌 바다 물속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은 그 어머니는 결코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토록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제 안으로 스며들면서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적셨습니다. 왜 나는 바보스럽게도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기도천막이 실종자 가족실 A동 막사와 B동 막사 사이에 마련된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에 더 가까이 현존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하느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사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 이번 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찾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의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게 하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봉사가 더 절실합니다.

그러한 지향으로 시작된 팽목항에서의 기도천막에 23일까지 많은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서울, 수원, 대구, 대전 등 각지에서 찾아오셨고, 매일 오후 4시에 미사를 봉헌하면서 실종자 가족의 아픔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 팽목항까지 기도하러 오셨을까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이 온통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 중 250명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들떠 여행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이루었을 그들이 허망하게도 말 없는 주검이 되어 지난 일주일 간 부모의 마음을 그토록 애태우더니 하나 둘씩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는 시민들은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 회식과 술자리를 자제하고, 오래전부터 잡아두었던 여행과 5월의 각종 콘서트도 또한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엄청난 슬픔을 다 함께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에 그렇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아픔의 사건인데도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막내아들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하였다죠? 또한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 속보 세월호 침몰 사망자', '구조 동영상 보기' 등의 문구로 현혹시켜 금전을 노리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였고요? 국민의 눈이 세월호에 쏠려있는 것을 틈타 국회가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도 하네요? 이런 행위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들이겠죠? 세월호 희생자들보다 더 불쌍한 영혼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고

수입쌀 유통의 불편한 진실

조 기 영
농협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팀 차장

국내에 쌀이 수입된 것은 1970년대 종자개량을 위해 필리핀에서 종자용으로 수입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1990년대 들어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되어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131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예시 계획을 발표했다.

쌀에 대한 시장개방은 1994년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MMA(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199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국내소비량(1986~1988년)의 1%부터 단계적으로 4%까지 증량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하는 대신 2005년부터 MMA물량을 매년 7.96%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유예 연장 마지막해인 금년에는 40만t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2004년까지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되던 것이 2005년부터는 MMA 물량의 10%가 밥쌀용으로 수입되었으며 2010년까지 30%로 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밥쌀용 수입쌀은 약 12만t에 달한다.

현재 수입쌀은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 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밥쌀용 수입쌀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수입 현지에서 흰쌀로 도정된 뒤 10kg, 20kg 지대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는데 이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지난 1월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가격(중국산 1등급/20kg 기준)은 2만8000원선으로 국내산 쌀 도매 평균가격 4만3000원 대비 약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값싼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판매하면 손쉽게 큰 이익을 챙길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일부 양곡업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술로 양곡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업체에서 미국산 칼로스 쌀 95%에 국내산 찹쌀 5%를 섞고 마치 전체가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이들은 소비자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하도록 표시방법을 조그만 스티커 처리하는 등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5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이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곡업자들은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 혼합쌀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수입쌀 혼합 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 혼합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과 쌀 이력추적제 도입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다.

올해는 쌀 수입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중요한 해로 쌀 수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쌀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차 대한민국의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수입쌀 혼합판매는 근절되어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社 說

재난관리체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타워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치부는 수준 이하의 정부 재난 대처 능력이다. 사고 초기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초적인 통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왕좌왕하는 중대본의 일 처리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의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됐고, 결국 국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조활동에서도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경 등은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거듭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했지만 혼란과 혼선은 계속됐다. 급기야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행진까지 시도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의 헛바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처 이기주의나 복지부동을 줄이고, 유사시 강력하고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재난관리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지난해 3월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현 정부가 고친 재난관리 체계는 일개 부처에 불과한 안전행정부에 재난의 총괄조정권을 맡김으로써 혼선을 자초했다. 전임 정부의 재난 체계를 개선했다며 야심차게 선보였던 것이 현실에서는 조직의 이원화를 초래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재난은 대개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만큼 정부도 안행부뿐만 아니라 국방부·해양수산부·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소방방재청 인력이 재난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리를 듣더라도 이러한 구조는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 과열, 이게 새 정치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벌이는 불·탈법이 가관이다. 주승용·이낙연 후보 간에 경선전이 과열되면서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불상사를 빚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선관위는 23일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낙연 후보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도선관위는 이날 주승용 의원 후보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1310명의 당비 786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해남에서 지지자 A씨가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두 후보 진영 간에 의혹 제기와 폭로전이 심화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와 주 후보 측은 당비 대납과 불법 문자 발송을 내세워 자격 박탈을 중앙당에 요구하는가 하면 이미 대학 측에서 주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번에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난타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두 후보 간에 벌이는 진흙탕싸움은 자칫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도 누(累)가 되는 것이다. 검찰에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경선과 본선에서 설사 승자가 되더라도 도지사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 간 과열 경쟁으로 불법선거에 휩싸일 우려도 크다.

두 후보는 정책 대결을 통해 선택을 받아야지 '이전투구'로 일관한다면 외면만 받을 뿐이다. 중앙당도 이들의 불·탈법을 좌시해선 안 될 것이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니라면 새 정치와는 분명 거리가 멀다.

無 等 鼓

'나 거기 없소'

눈 내리던 어느 날, 운전 중 라디오를 듣다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생일을 맞아 아들이 신청한 음악을 들어서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다. 잔잔한 멜로디를 타고 흐르는 노래 중 한 대목이 유독 기억에 남았다. '나 거기 없소.'

지난 23일 운전 중 다시 이 노래를 들었다. 봄꽃 만개한 봄날 오후였다. 아름다운 봄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 세상 떠난 이가 남은 이들에게, '울지마라' 나직하게 건네는 노랫말과 아름다운 멜로디는 아련했다. 같은 시간에 어디선가 이 음악을 들었던 이들은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거다.

'KBS 음악실' 홈페이지에서 선곡표를 확인했다. 제목은 '내 영혼 바람되어(A Thousand Winds)'. 김효근이 곡을 쓰고,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노래였다. 가사는 외국 시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에서 따왔다.

오랫동안 인디언들의 구전시로 알려져 온 이 시는 메리 엘리자베스 프리에가 1932년에 쓴 작품이라는 게 1988년 밝혀졌다. 그녀는 유대계 독일 여인 마가레트 슈와츠코프를 위해 시를 썼다고 한다.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던 시절, 슈와츠코프는 어머니를 간병하러 독일로 갈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어머니의 묘소에 서서 슬픔을 나눌 수도 없다"는 사연을 들은 그녀는 쇼핑백에 이 시를 적었다고 한다.

'그 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그 곳에서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되어/ 곡식 영그는 햇빛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내 영혼 바람되어')

세월호 참사 9일째. 남은 이들은 '노란 리본'를 매달며 기적을 갈구하고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있다. 어느 날 만나는 바람이, 가을비가, 별빛이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은 친구들, 못난 어른들을 위로하는 '그들'일지도 모르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